금주의 법구–〈장부장경〉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라.
오직 니르바나를 향해 나아가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5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3월 21일)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사찰 문화재관람료 갈등, 60년 만에 해소

조계종–문화재청 업무협약 체결
5월 4일부터 65개 사찰서 감면
매표소 명칭 '문화유산안내소'로
탐방객 증가…관련 대책 필요해
정부와 불교유산 보호 캠페인도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휴가철만 되면 불교계와 등산객은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놓고 원치 않는 갈등을 겪어왔다. 60여 년 동안 이어진 해묵은 갈등이 드디어 해소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진우)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5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사찰에 대한 문화재관람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5월 1일 밝혔다.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며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국립공원입장료 도입 후 1970년부터 통합 징수돼 오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며 공원 내 사찰과 탐방객들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사찰 등의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해 관련 예산 421억 원이 책정 · 승인돼 비로소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라는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대상 사찰은 총 65개소로 대부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 보물 보유 사찰이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인 강화 보문사, 부여 고란사 등 5개 사찰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징수를 유지한다.

기존 매표소의 경우 명칭은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된다. 안내소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올해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예산은 419억 원이며, 배정된 예산 421억 원 중 2억 원은 사업 연구 용역으로 사용된다. 문화재관람료 감면은 민간경상보조 사업방식으로 문화재청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신청과 집행을 추진하게 된다. 감면 비용 신청은 법 시행 후 오는 6월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감면비용 산정기준은 감면 직전 년도 관람료 수입 및 관람객 수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예산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무료입장이 현실화되면서 불교문화유산 보존 · 활용을 위한 조계종과 정부의 협약도 이뤄졌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조계종과 정부는 협약을 통해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불교문화유산 가치 인식과 체험에 수반되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올해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약속드린 대로 정부와 원만한 협의를 마치고 드디어 5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찰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어 소회가 남다르다"면서 "천년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이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다"고 축하했다.

이어 "소중한 문화유산을 국민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여건 조성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조계종은 한류의 문화원형인 불교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후대에 온전히 계승돼 민족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온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강화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협약이 불교문화유산과 그 주변 경관이 지니는 가치를 보존하면서, 널리 향유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랜 갈등이 해결됐지만, 탐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 대책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정부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유산을 더욱 소중히 보호하기 위해 관람객과 더불어 국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조계종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불교문화유산 보존 인식 공유과 사찰 예절 준수를 국민들에게 요청했다.

스님은 "캠페인을 통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사찰의 환경이 보호되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이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수행환경이 심대하게 훼손된다면 예약제 등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과 교구본사, 문화재청은 사찰 문화재관람료 무료 입장 시행 첫 날인 5월 4일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대상 사찰 (65개소)

전등사(강화), 용주사(화성), 신륵사(여주), 신흥사(속초), 청평사(춘천), 낙산사(양양), 백담사(인제), 월정사(평창), 삼화사(동해), 구룡사(원주), 법주사(보은), 영국사(영동), 마곡사(공주), 동학사(공주), 갑사(공주), 신원사(공주), 무량사(부여), 관촉사(논산), 수덕사(예산), 직지사(김천), 동화사(대구), 파계사(대구), 운문사(청도), 용연사(대구), 은해사(영천), 수도사(영천), 대전사(청송), 불국사(경주), 석굴암(경주), 분황사(경주), 기림사(경주), 보경사(포항), 불영사(울진), 해인사(합천), 쌍계사(하동), 옥천사(고성), 범어사(부산), 통도사(양산), 내원사(양산), 석남사(울주), 표충사(밀양), 봉정사(안동), 부석사(영주), 금산사(김제), 금당사(진안), 안국사(무주), 실상사(남원), 백양사(장성),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연곡사(구례), 태안사(곡성), 흥국사(여수), 향일암(여수), 선암사(순천), 송광사(순천), 운주사(화순), 대흥사(해남), 무위사(강진), 도갑사(영암), 선운사(고창), 내소사(부안), 내장사(정읍), 자재암(동두천), 용문사(양평)

김 주 일
(1968~2023)

본지 편집국장 별세
5월 4일 지병으로…향년 55세



김주일 본지 편집국장〈사진〉이 5월 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김주일 편집국장은 한성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편집국장은 1997년 〈현대불교신문〉 공채 2기로 입사한 이래 줄곧 평생을 불교언론인으로 살아왔다. 〈주간불교〉에서 편집국 총괄부장을 지냈으며, 〈현대불교신문〉에서 편집부장과 편집부국장,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6년을 종단, 포교, 문화,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취재하며 불교계 소식을 대내외에 알렸으며, 〈현대불교신문〉에서 불교문화체험기행을 기획해 4년 동안 진행했다. 불교방송에서 '문화를 알면 세계가 보인다' '행복스튜디오' '주간불교소식' '무명을 밝히고' 등의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했다.

김 편집국장은 불교 전문 기자로서 역량을 향상하고자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2017년 취득했다. 석사 논문은 '한국 불교 언론의 보도시스템에 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불교계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72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했다.

김 편집국장은 불교언론인으로서 기자상을 다수 수상했다. 주요 수상 이력은 △한국불교기자상 취재부문 우수상(2000) △한국불교기자상 대상 '선원빈 기자상'(2011)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우수상(2011) 등이다.

김 편집국장의 빈소는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으며, 현대불교신문사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 및 발인은 5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엄수됐다. 장지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광명선원. 신성민 기자



故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당신이 가고자 했던 길과 이루고자 했던 꿈을
이제는 우리가 나누고 이어나갈 것입니다.
늘 든든하고 따뜻하게 우리 곁을 지켰던 당신을
오래오래 기리며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례위원회